

##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외적 요인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Children's Aggression : Effects of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Children's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Daily Hassles,  
and Emotional Regulation\*

김지현(Jihyun Kim)<sup>1)</sup>

박경자(Kyung Ja Park)<sup>2)</sup>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children's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daily hassles, and emotional regulation on school-age children's aggressive behaviors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analysis. Subjects were 589 children in 4, 5, 6th grade and their mothers from three elementary schools in Seoul, Korea.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and SEM analysis by SPSS 12.0 and AMOS 4.0. The SEM shows differences between overtly aggressive and relationally aggressive children.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affected their children's overt aggression through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Additionally,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affected children's overt aggression through children's daily hassles and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influenced children's relational aggression through children's daily hassles and children's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Key Words** :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overt, relational aggression), 어머니의 양육행동(maternal parenting behaviors), 사회정보처리과정(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일상적 스트레스(daily hassles), 정서 조절(emotional regulation).

\* 본 연구는 2004년도 학술진흥재단 신진연구인력지원금에 의해서 연구되었음(KRF-2004-908-C00043).

<sup>1)</sup> 연세대학교 어린이 생활지도 연구원 전문 연구원

<sup>2)</sup>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Jihyun Kim, Child and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134 Sinchon-dong, Seodaemun-gu, Seoul 120-749, Korea  
E-mail : jihyunkim@chol.com

## I. 서 론

아동은 출생 초기부터 가족이라는 사회적 관계 안에서 성장하며 타인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면서 발달한다. 아동의 발달에 있어 중요한 타인은 발달단계별로 다른데 영·유아기에는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하나 아동기에 이르면 부모 외에도 또래들과의 관계 형성이 중요해진다. 아동은 상호 평등성을 기초로 한 또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 나가고 또래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제공받는다. 이런 측면에서 또래와 효과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한 아동은 사회·심리적 부적응을 보이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발달적 결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많은 연구들은 학업 성취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들의 중요한 전조로서 또래 거부와 고립을 보고하고 있다(Kupersmidt, Coie, & Dodge, 1990; Parker & Asher, 1987). 아동기의 공격성은 또래 거부를 예언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며 (Coie & Dodge, 1998), 아동기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사회적 어려움을 예측하는 행동적 요인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Coie, Dodge, & Kupersmidt, 1990; Crick, 1996). 이에 따라 공격성이 어떻게 발달하는지, 그리고 아동기 공격성으로 인한 결과는 무엇인지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다.

아동의 공격적 행동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공격적 행동의 한 형태인 신체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왔다. 일반적으로 공격성은 신체적 측면에 초점을 둔 외현적 공격성을 지칭해 왔고, 이 형태의 공격성은 여아들보다는 남아들에게 일반적이다. 따라서 공격성에 관해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은 주로 남아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때

리기, 밀기 같은 외현적인 공격성에 관한 것이어서(Berkowitz, 1993; Block, 1983), 결과적으로 여아의 공격성에 관한 정보를 거의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Crick & Dodge, 1994).

최근 연구자들은 남아에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공격성뿐만 아니라 여아에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관계적인 공격성을 연구하였다. 관계적인 공격성은 우정 관계 혹은 또래 관계를 통제하거나 손상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조작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것을 의미한다(Crick & Grotpeter, 1995). 관계적 공격성을 포함한 연구들은 외현적인 공격성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공격성의 측정이 남아와 여아의 공격적 행동을 적절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Crick, Werner, Casas, O'Brien, Nelson, Grotpeter, & Markon, 1999).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개인 내적 요인과 개인 외적 요인으로 살펴 볼 수 있다. 아동의 공격성에 중요한 개인 내적 요인으로는 아동의 사회정보처리과정과 정서 조절을 들 수 있다. 아동의 공격적 행동의 유지와 발달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로서 선행된 연구들은 사회정보처리이론의 유용성을 주장해 왔다(Dodge & Crick, 1990). 사회정보처리이론에 따르면 공격성을 포함한 아동의 사회적 행동은 사회적 단서의 입력, 해석, 목표의 형성, 반응 접근 및 결정과 같은 인지 과정의 기능에 영향을 받는다(Crick & Dodge, 1994). 이 이론에 기초를 둔 연구들은 공격적인 아동들이 사회정보처리의 각 단계에서 결핍이 나타나서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한다. 종단적 연구와 실험 연구에서도 이러한 왜곡된 사회정보처리 방식은 공격적인 행동 양식에 선행했고 이러한 왜곡을 적절한 방식으로 변화시켜줌으로써 아동의 행동이 개선되었다고 보고하였다(Dodge, Bates, & Pettit, 1990).

아동의 정서 조절 능력 역시 공격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몹시 화가 났을 때는 대인 관계에서 적절한 판단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처럼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은 공격적인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Dodge, 1991). 정서 조절이란 내적 감정 상태 및 정서와 관련된 생리학적 과정의 발생, 강도, 지속시간을 조정하는 과정이며(Thompson, 1994), 정서 조절은 필요할 경우 반응을 지연하는 능력 뿐 아니라, 정서 경험을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법으로 반응하는 능력을 의미한다(Cole, Michel, & Teti, 1994).

정서 조절과 공격성에 관한 연구는 정서 조절이 사회적 행동과 관계가 있다는 가정 하에(Campos, Campos, & Barrett, 1989; Thompson, 1994) 정서조절과 사회적 유능성, 문제 행동 및 공격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Eisenberg와 동료들(2000)은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2년 동안의 추적 연구를 통해 양육행동과 정서 조절, 그리고 외현적인 문제 행동 사이에서 부정적인 정서성이 중재역할을 한다는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정서 조절 능력이 공격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아동의 정서 조절과 행동 문제를 살펴 본 한유진(2004)의 연구도 정서 조절 능력이 과잉 행동 및 공격 행동과 같은 외현적 행동 문제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Crick과 Dodge(1994)는 개정된 사회 정보처리이론에서 정서적 반응이 사회적 상황에 대한 해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사회정보처리과정의 해석 단계에 정서적 반응을 포함시켰다. 즉 또래의 행동에 대해 화가 난 감정은 또래의 의도를 적대적으로 평가하는데 기여해서 공격적인 반응을 이끌어 낸다는 것이다.

아동의 공격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외적 요인으로는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들 수 있다. 아동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그 자극의 강도에 따라 크게 중대한 삶의 사건, 일상적 스트레스, 그리고 매일의 문제로 나눈다. 그 중 일상적 스트레스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기분 나쁜 일, 속상한 일, 놀랐던 일로써 아동에게 흔히 있을 수 있는 일 등을 지칭한다(Band & Weisz, 1988). 일상적 스트레스가 아동에게 위협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하지는 않지만 몇 개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동시에 발생하면 복잡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중대한 삶의 사건 하나보다 발달에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다(Kanner, Coyne, Schaefer, & Lazarus, 1981). 이에 따라, 중대한 삶의 사건이 주는 한 번의 스트레스보다 일상적 문제로 인해 누적된 스트레스가 심리적 건강과 정서적 적응을 더 잘 예측해 준다는 연구들이 보고 되고 있다(Delongis, Folkman, & Lazarus, 1988).

공격성과 일상적 스트레스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스트레스와 공격성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연구하기보다는 공격성을 문제행동에 포함시켜 살펴본 연구(송정아·이양희, 2004; 한미현·유안진, 1996)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전략 중 하나로서 공격적인 전략을 살펴본 연구가 대부분이다(Hardy, Power, & Jaedicke, 1993). 송정아·이양희(2004)는 유아가 일상적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적대적·공격성의 반사회적 행동을 많이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한미현과 유안진(1996)은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과잉 행동, 위축 행동, 공격 행동, 그리고 미성숙 행동은 초등학생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스트레스 대처 전략 중 공격적 전략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지지적인 경우 아동이 일상적 스트레스에 대해 공격적인 전략을 덜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Hardy, Power, & Jaedicke, 1993).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아동이 처음으로 접하는 사회 환경이 가정이고 어린 시절을 대부분 가정에서 보내기 때문이다. 부모 양육과 관련된 변인들과 아동의 공격성 간에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아동의 공격성 발달에 있어서 부모의 훈육 방법이 영향을 미치며(Travillion & Snyder, 1993), 부적절한 양육이 아동의 공격성을 예언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라고 보고하고 있다(Farrington, 1989). 특히, 비밀관적이고 거친 신체적인 훈육, 부모의 관리와 감독 소홀, 그리고 부적절한 부모 관여가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Crick, 1997; Crick & Dodge, 1994).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선행연구들은 아동의 사회정보처리과정, 정서 조절, 일상적 스트레스,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공격성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에 제시된 선행 연구들에서는 아동의 사회정보처리과정과 공격성, 아동의 정서 조절과 공격성,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공격성,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공격성의 관계에 대한 분석에서 주로 상관관계를 통해 단편적으로 변인간의 관계성을 탐색해 보는 것에 제한되어 있다. 또한 이제까지 공격성에 대한 연구는 주로 외현적 공격성에만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왔고, 일상적 스트레스, 정서 조절과 공격성의 관계는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제행동에 공격성을 포함시키거나 스트레스 대처전략으로 공격적 전략을 살펴본 연구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정보처리의 이론적 관점에 근거하여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외적 요인에 관심을 갖고 개인 내적 변인으로서 아동의 사회정보처리과정과 정

서조절을, 개인 외적 변인으로서 일상적 스트레스와 어머니 양육행동을 선정하여 이 변인들 사이의 직·간접적인 경로를 탐색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이러한 경로는 공격성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Crick, 1996; Crick, Grotper, & Bigbee, 2002)에 따라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 유형에 따라 경로를 각각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 목적을 갖고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어머니의 양육행동, 아동의 사회정보처리과정, 일상적 스트레스, 정서 조절은 아동의 공격성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며, 이 경로는 공격성의 유형, 즉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에 있는 3개 초등학교의 4학년 184명(남아 113명, 여아 71명), 5학년 191명(남아 103명, 여아 88명), 6학년 214명(남아 126명, 여아 88명)의 아동 589명과 그들의 어머니 589명이었다.

이들을 선정하기 위하여 먼저 서울시에서 중류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강서구, 노원구, 마포구에 위치한 초등학교 중 3곳을 임의 표집한 후 4~6학년에서 각 15학급씩 총 45학급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학급의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용 질문지, 어머니용 질문지 및 공격성에 대한 또래 지명 검사를 실시하였다. 또래 지명 검사 결과 각 아동이 또래로부터 지명 받는 횟수를 합

산하여 학급별로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표준점수(Z점수)를 구하였다. 이렇게 산출한 표준점수에 의해 학급별 상위 30%의 아동들을 공격성이 높은 집단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 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상 아동의 성별 구성은 남아 58.1%, 여아 41.9%로 남아가 더 많았고, 학년별 구성은 4학년이 31.2%, 5학년이 32.4%, 6학년이 36.4%로 각 학년별로 비슷하였지만 6학년이 가장 많았다. 부모의 연령을 살펴보면, 남아와 여아의 부모 모두 주로 30대와 40대였다. 부모의 학력에서 아버지는 주로 고졸(39.9%)과 대졸(29.4%)이 많았고, 어머니는 고졸(59.6%)이 가장 많았다. 부모의 직업별 특성을 보면, 아버지의 직업은 자영업(42.4%)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사무직(38.0%)이었다. 어머니는 전업주부(47.9%)가 가장 많았고 취업한 경우에는 사무직(15.6%)에 종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가계의 월수입은 200만원대(32.4%)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0만원대(23.2%)였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5년 2/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310만 9천원이었으며(통계청, 2005), 본 연구 대상의 가정의 약 56%가 월평균 수입이 200~400만원 사이에 속하였다. 따라서 부모 학력과 직업 및 소득을 같이 고려하여 볼 때, 본 연구 대상 아동의 가정은 중류층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 2. 측정 도구

### 1)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또래 지명 도구(Crick, 1995; Crick & Grotpeter, 1995)를 본 연구에 맞게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외현적 공격성에 관한 여섯 문항(예, 다른 친구들을 때리고, 차고, 주먹질 하

는 친구), 관계적 공격성에 관한 여덟 문항(예, 자신이 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친구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친구)과 연구 목적과는 무관하나 부정적인 문항과의 균형을 위해서 친사회적 행동에 관한 네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연구 대상 아동은 각 문항의 설명에 해당하는 반 친구를 성에 상관없이 세 명까지 지명하였다.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의 점수는 아동이 또래로부터 지명 받는 횟수를 합산하여 각 문항에 대해 학급별로 표준점수(Z점수)를 구한 뒤, 아동 개인별로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 문항의 표준화된 점수를 합산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외현적 공격성 문항의 Cronbach  $\alpha$ 계수는 .91, 관계적 공격성 문항의 Cronbach  $\alpha$ 계수는 .95였다.

### 2) 어머니의 양육행동<sup>1)</sup>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자가 예비 조사를 거쳐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선정된 문항은 온정·수용(8문항), 비일관적 훈육(6문항), 신체적 체벌(5문항), 관리·감독(5문항)에 대한 24문항이다. 어머니들은 각 문항에 나타난 양육행동을 집에서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1점)’에서 ‘자주 사용한다(4점)’까지의 4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 점수를 사용하였는데 부정적 양육행동 점수는 어머니 양육행동의 긍정적 하위 영역인 온정·수용 문항과 관리·감독 문항 중 1번, 6번 문항을 역점수화하여 각 하위 영역별(온정·수용, 비일관적 훈육, 신체적 체벌, 관리·감독) 합점수를 사용하였다. 각 하위 영역별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1) 어머니 양육행동 측정도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지현(2005)을 참고 할 것.

〈표 1〉 사회정보처리과정의 측정 내용

사회정보처리과정		측정 내용	점수범위
1. 해석 단계	의 도	각 이야기에 등장하는 또래의 행동이 의도적인지 비의도적인지에 대한 아동의 생각을 측정	16-32
	정 서	각 이야기에 대한 아동의 정서적 반응 측정	8-24
2. 목표 형성 단계	목표 선호	도구적 목표와 관계적 목표 중 선호하는 목표 측정	6-12
	반응 선택	외현적 공격적, 관계적 공격적, 친사회적 반응 전략 중 어느 전략을 사용할지 측정	0-6
3. 반응 결정 단계	결과 기대	각 전략(외현적 공격적, 관계적 공격적, 친사회적)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 측정	6-12
		각 전략을 사용했을 때 친구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측정	6-12
	반응 평가	각 전략(외현적 공격적, 관계적 공격적, 친사회적)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아동의 생각을 측정	6-12

양육행동을 많이 보임을 의미한다. 각 하위 차원의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  $\alpha$ 는 온정·수용이 .84, 비밀관적 훈육이 .77, 신체적 체벌이 .71, 관리·감독이 .71이었다.

### 3) 사회정보처리과정<sup>2)</sup>

아동의 사회정보처리과정 측정 도구는 Crick (1995)과 Crick과 Dodge(1996)가 개발한 것으로 8가지 이야기로 구성된 해석 단계 측정 도구(Crick, 1995; Fitzgerald & Asher, 1987)와 6가지 이야기로 구성된 목표 형성 및 반응 결정 단계 측정 도구(Crick & Werner, 1998)를 사용하였다. 사회정보처리과정 각 단계를 측정한 측정 내용은 <표 1>과 같다.

### 4) 일상적 스트레스

아동이 경험하는 일상적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민하영·유안진(1998)이 제작한 학령기 아

2) 사회정보처리과정 측정 도구의 자세한 내용은 김지현(2005)을 참고 할 것.

동의 스트레스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부모관련 스트레스, 친구관련 스트레스-소외감, 학업관련 스트레스, 친구관련 스트레스-위협감, 교사관련 스트레스에 관한 51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통해 친구관련 스트레스(15문항), 학업관련 스트레스(7문항) 그리고 부모관련 스트레스(13문항)의 35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아동은 각 스트레스 문항에 대해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다(1점)’에서 ‘많이 받는다(4점)’까지의 4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각 하위 차원의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  $\alpha$ 는 친구관련 스트레스가 .91, 학업관련 스트레스가 .88, 그리고 부모관련 스트레스가 .86이었다.

### 5) 정서 조절

정서 조절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지는 이병래(1997)가 제작한 정서 지능 척도의 4개 하위 영역 중 자기 조절과 타인 조절의 2개 하위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자기 조절 영역

은 8문항, 타인 조절 영역은 9문항으로 총 17문항으로 구성이 되며 자기 조절 영역에는 ‘게임에 졌을 때 화내지 않고 결과를 수용한다’, 타인 조절 영역에는 ‘친한 친구가 슬퍼하고 있을 때 위로할 줄 안다’와 같은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아동의 어머니는 자녀가 각 문항에 나타난 특성을 보이는지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정말 그렇다(4점)까지의 4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각 하위 차원의 내적 합치도 Cronbach  $\alpha$ 는 자기 조절이 .71, 타인 조절이 .81이었다.

### 3. 연구 절차

본 조사의 연구 대상은 서울시에 위치한 3개 초등학교의 4, 5, 6학년 아동 589명과 그들의 어머니 589명이었다. 연구를 위한 절차를 살펴보면, 아동용 질문지는 질문 문항이 일 회에 응답하기에는 분량이 많다고 판단하고 이틀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다. 검사 첫날은 본 연구자와 사전에 훈련된 아동학을 전공하는 대학생 2명이 대상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또래 지명 검사와 사회정보처리과정에 관한 질문지(아동용 질문지 1)를 배부한 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 때, 한 학급의 학생을 8~10명 정도의 소집단으로 나누어 또래 지명 검사와 사회정보처리과정에 대한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질문지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35분이었다. 이어 둘째 날에는 일상적 스트레스 질문지(아동용 질문지 2)를 각 학급별로 담임교사가 아동에게 실시하였다.

어머니용 질문지는 어머니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 조절에 대한 내용으로 첫째 날 아동용 질문지 1을 실시한 후 아동들에게 배포하였다. 봉투에는 어머니용 질문지와 함께 질문지에 대한 설명, 주의사항, 비밀 보장에 대한 것과 협조를 부탁하는 공문을 동봉하였다. 담임교사에게는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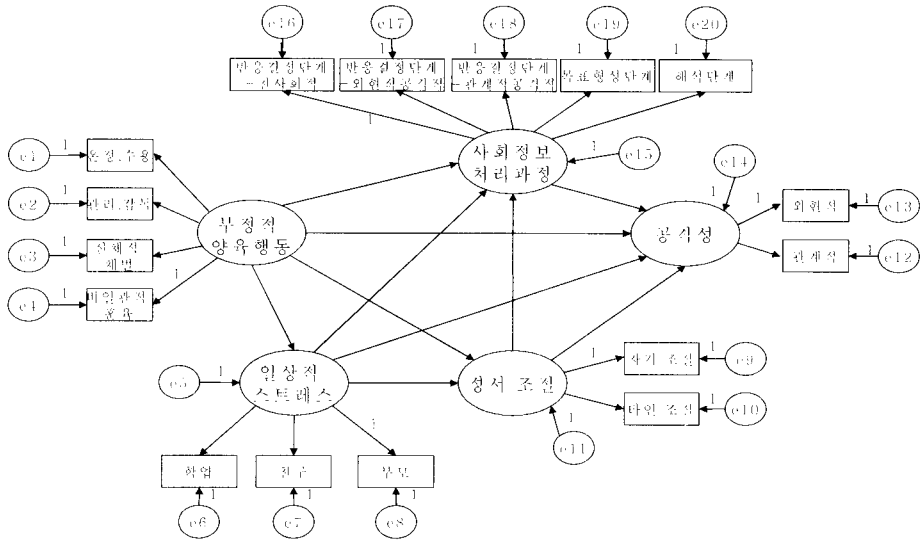
동들이 부모용 질문지를 갖고 오는 것을 상기할 수 있도록 질문지 수거에 대한 협조를 부탁하였다. 질문지 수거를 위해 아동용 질문지 1을 실시한 날로부터 1주일 후 본 연구자가 각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두 번째 아동용 질문지인 일상적 스트레스 질문지와 회수된 부모용 질문지를 수거하였다.

부모용 질문지는 1,692부를 배부하였고 그 중 1,486부가 회수되어 88%의 회수율을 보였다. 본 연구의 특성상 어머니용 질문지와 아동용 질문지가 함께 있어야 분석이 가능하므로 어머니 질문지가 회수되지 않은 경우와 회수 되었더라도 응답내용이 불충분한 경우는 제외시켰다. 어머니용 질문지, 아동용 질문지 1, 2가 모두 회수된 경우는 총 1,470부였고 이 중 공격성 정도가 상위 30%에 속하는 아동 589명과 그들의 어머니 589명이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되었다.

### 4. 자료 분석 및 모형 검증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윈도우용 프로그램과 AMOS 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의 인구학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주요 변인들의 기술적인 경향을 알아보기와 각 측정 변인 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셋째, 연구 가설의 검증을 통해 관련 변인들간의 관련 모형을 검증하고자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사용하였고, 이는 AMOS 4.0 프로그램을 통해 처리하였다. 모형 검증을 위한 미지수와 부합지수들의 계산은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증한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이론적 모형은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 아동의 사회정보처리과정, 일상적 스트레스, 정서 조



• e1 ~ e20 : 오차항

(그림 1) 아동의 공격성에 대한 측정 모형

절, 공격성의 5개 이론 변인으로 구성이 된다. 이 이론변인들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변인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은 온정·수용, 관리·감독, 신체적 체벌, 비일관적 훈육의 하위요인으로 측정하였다. 사회정보처리과정은 해석 단계, 목표 형성 단계, 반응 결정 단계-외현적 공격적, 반응 결정 단계-관계적 공격적, 반응 결정 단계-친사회적으로 측정하였다. 일상적 스트레스는 친구관련 스트레스, 학업관련 스트레스, 부모관련 스트레스로 측정하였다. 정서 조절은 자기 조절과 타인 조절로 측정을 하였고 공격성은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으로 측정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측정 변인의 일반적 경향

본 연구에서 측정한 변인들의 가능한 점수 범위 및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먼저 어머니 양육행동 하위 영역의 문항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온정·수용이 3.2점, 관리·감독이 3.6점으로 이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척도 중 3점인 '대체로 그렇다'와 4점인 '정말 그렇다' 해당하는 것으로, 어머니가 중간보다 높은 수준의 온정적 양육과 관리·감독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신체적 체벌의 경우는 문항 평균 점수가 1.8점이고 비일관적 훈육의 경우는 1.7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4점 척도 중 2점인 '대체로 그렇지 않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머니가 중간보다 낮은 수준의 신체적 체벌과 비일관적 훈육을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정보처리과정의 하위 영역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해석 단계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상황에 대한 주어진 단서를 의도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가능 점수 범위 24~56점 중 37.3점에 해당되어 중간(40점) 보다 낮은 수준으로 주어진 단서를 의도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 형성 단계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도구적 목표를 선호함을 의미한다. 대상 아동은 목표 형성 단계의 가능 점수 범위 6~12점 중에서 10.5점에 해당되어 관계적 목표보다 도구적 목표를 더 선호함을 알 수 있다. 반응 결정 단계에서는 외현적 공격적 반응 결정의 평균 점수가 20.1점, 관계적 공격적 반응 결정이 19.7점, 그리고 친사회적 반응 결정이 36.1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이 외현적 공격적 반응 결정과 관계적 공격적 반응 결정보다 친사회적 반응 결정을 더 많이 보임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일상적 스트레스의 하위 영역별 문항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부모관련 스트레스가 2.2점, 친구관련 스트레스가 2.2점, 학업관련 스트레스가 2.6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관련 스트레스와 친구관련 스트레스의 경우 4점 척도 중 2점인 '별로 받지 않는다'에 해당하는 것이고 학업관련 스트레스의 경우는 4점 척도 중 3점인

'약간 받는다'에 해당하는 것이다.

정서 조절 영역의 경우 문항 평균 점수를 살펴 보면 자기 조절이 2.6점, 타인 조절이 3.2점으로 자기 조절과 타인 조절 모두 4점 척도 중 2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와 3점인 '대체로 그렇다' 사이에 분포하였다.

공격성의 경우 또래 지명법을 사용하여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모든 분석에는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의 Z점수가 사용되었지만 <표 2>에서는 이해를 돕고자 원점수를 제시하였다.

아동의 공격성의 경우 외현적 공격성의 문항 평균이 2.8점, 관계적 공격성의 문항 평균이 2.5점으로 외현적 공격성 지명 점수가 관계적 공격성 지명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아동이 한 반에서 각 문항 당 3명 정도에게 공격적이라고 지명을 받는 수준임을 의미한다.

<표 2> 측정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N=589)

이론 변인	측정변인	가능점수범위	평균 (M)	문항평균	표준편차 (SD)
어머니의 양육행동	온정·수용	8-32	25.4	3.2	3.3
	관리·감독	5-20	18.1	3.6	2.2
	신체적 체벌	5-20	8.8	1.8	2.3
	비일관적 훈육	6-24	10.0	1.7	2.5
사회정보 처리과정	해석 단계	24-56	37.3	-	6.4
	목표 형성 단계	6-12	10.5	-	1.9
	반응 결정 단계-외현적 공격적	18-42	20.1	-	3.0
	반응 결정 단계-관계적 공격적	18-42	19.7	-	2.5
일상적 스트레스	반응 결정 단계-친사회적	18-42	36.1	-	5.2
	부모관련 스트레스	13-52	29.2	2.2	8.6
	친구관련 스트레스	15-60	33.7	2.2	11.2
정서 조절	학업관련 스트레스	7-28	18.4	2.6	6.2
	자기 조절	8-32	21.1	2.6	3.5
공격성	타인 조절	9-36	29.1	3.2	3.7
	외현적 공격성	(0-6)×학생수	17.0	2.8	20.2
	관계적 공격성	(0-8)×학생수	19.9	2.5	18.7

<표 3> 수정된 외현적 공격성 모형의 적합도 지수

적합도지수	$\chi^2$	df	p	$\chi^2/df$	TLI	CFI	RMSEA
가설모형	207.09	81	.00	2.56	.90	.92	.05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종속 변인인 아동의 공격성이 독립변인들 외에 아동의 특성(학년, 성별, 출생순위)이나 가족의 특성(부모의 연령,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월수입)과도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부모의 연령, 교육수준, 월수입과 같은 가족 특성들 중 아동의 공격성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변인이 없었던 반면, 아동의 특성인 성은 외현적 공격성( $r=-.32, p<.01$ )과 관계적 공격성( $r=-.09, p<.05$ )에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아가 여아보다 외현적 공격성(남아 :  $M=22.1$ , 여아 :  $M=10.0$ )과 관계적 공격성(남아 :  $M=21.4$ , 여아 :  $M=17.8$ ) 모두에서 점수가 높았다.

이상과 같이 아동의 공격성은 아동의 성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기 때문에 아동의 공격성에 대한 이후의 모든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에서 아동의 성을 통제된 후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 2.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 모형의 적합도 분석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공격성의 가설적 구조 모형이 주어진 경험적 자료와 잘 부합되는지 알아보고 최적의 모형을 확인하기 위하여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고, 이에 따라 모형을 수정하였다. 수정된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3>, <표 4>과 같다.

<표 3>, <표 4>에 따르면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이론적 모형의 적합도는 카이값과 모델의 자유도간의 비가 2.56, 2.66으로 나타나 비교적 잘 맞는 적합도 수준이었으며 이외의 다른 적합도를 살펴보면, TLI, CFI 등이 .90을 넘는 수치를 보였다. RMSEA도 .05로 나타나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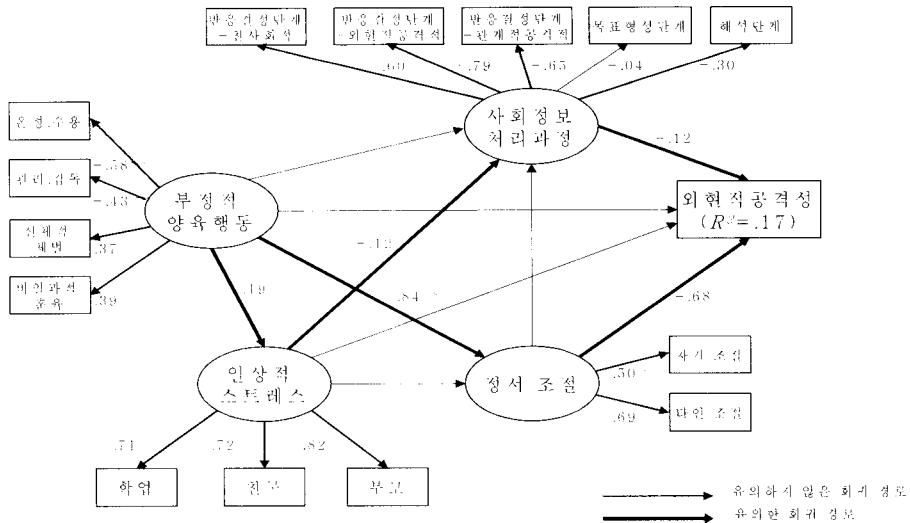
## 3.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 모형의 경로 분석

다음으로,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 아동의 사회정보처리과정, 일상적 스트레스, 정서 조절이 아동의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알아보기 위하여 수정모형을 분석하였다.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 모형에서 이론 변인들간의 경로를 살펴보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이론적 모형의 경로와 표준화계수는 <그림 2>, <그림 3>, <표 5>, <표 6>에 제시하였다. <그림 2>에 나타난 분석결과를 토대로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 아동의 사회정보처리과정, 일상적 스트레스, 정서 조절이 아동의 외현적 공격성에 미치는 직·간접적 경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변인 간 직접 경로를 요약하면 어머니의 부정

<표 4> 수정된 관계적 공격성 모형의 적합도 지수

적합도지수	$\chi^2$	df	p	$\chi^2/df$	TLI	CFI	RMSEA
가설모형	215.59	81	.00	2.66	.90	.91	.05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2〉 외현적 공격성 모형의 경로와 표준화 계수

적 양육행동이 일상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직접 경로,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이 정서 조절에 미치는 직접 경로,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사회정보처리과정에 미치는 직접 경로, 아동의 정서 조절이 외현적 공격성에 미치는 직접 경로, 아동의 사회정보처리과정이 외현적 공격성에 미치는 직접 경로가 유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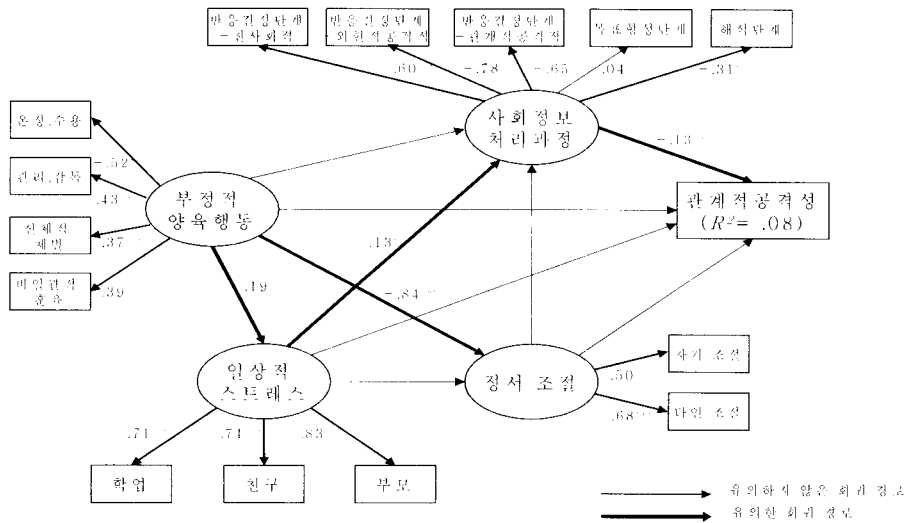
변인 간 간접 경로를 요약하면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은 정서 조절을 통해 외현적 공격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부정적인 양육을 할수록 아동은 정서 조절을 잘하지 못하고, 정서 조절 능력이 낮을수록 외현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은 또한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사회정보처리과정을 통해 외현적 공격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면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고, 아동이 일상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사회정보

〈표 5〉 외현적 공격성의 직·간접경로

외현적 공격성의 직접경로	
부정적 양육행동	→ 일상적 스트레스
부정적 양육행동	→ 정서 조절
일상적 스트레스	→ 사회정보처리과정
정서조절	→ 외현적 공격성
사회정보처리과정	→ 외현적 공격성
외현적 공격성의 간접경로	
부정적 양육행동	→ 아동의 정서조절 → 아동의 외현적 공격성
부정적 양육행동	→ 일상적 스트레스 → 사회정보처리과정 → 외현적 공격성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3〉 관계적 공격성 모형의 경로와 표준화 계수

처리과정에 왜곡이 생기며, 이는 외현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경로 들은 외현적 공격성의 17%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이 사회정보 처리과정을 통해 아동의 외현적 공격성에 이르는 경로,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이 일상적 스트레스를 통해 아동의 외현적 공격성에 미치는 경로,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정서 조절을 통해 외현적 공격성에 미치는 경로, 아동의 정서 조절이 사회정보처리과정을 통해 외현적 공격성에 미치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3〉에 나타난 분석결과를 토대로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 일상적 스트레스, 사회정보처리 과정, 정서 조절이 아동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직·간접적 경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변인 간 직접 경로를 요약하면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이 일상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직접 경로, 어머니 양육행동이 정서 조절에 미치는 직접 경로, 일상적 스트레스가 사회정보처리과정에 미치는 직접 경로, 사회정보처리과정이 관계

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 경로가 유의하였다.

변인 간 간접경로를 요약하면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은 일상적 스트레스를 거쳐 사회정보처리과정을 통해 관계적 공격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면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고, 아동이 일상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사회정보처리과정에서 왜곡이 생겨 관계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 이러한 경로는 관계적 공격성의 8%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이 일상적 스트레스를 통해 아동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경로,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이 사회정보처리과정을 통해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경로, 어머니 양육행동이 정서 조절을 통해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고 일상적 스트레스가 정서 조절을 통해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경로, 정서 조절이 사회정보처리

〈표 6〉 관계적 공격성의 직·간접경로

관계적 공격성의 직접경로	
부정적 양육행동	→ 일상적 스트레스
부정적 양육행동	→ 정서 조절
일상적 스트레스	→ 사회정보처리과정
사회정보처리과정	→ 외현적 공격성

관계적 공격성의 간접경로	
부정적 양육행동	→ 일상적 스트레스 → 사회정보처리과정 → 외현적 공격성

과정을 통해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도 유의하지 않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 아동의 사회정보처리과정, 일상적 스트레스, 정서 조절이 공격성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경로는 공격성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공격성의 유형에 관계없이, 즉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의 모델 모두에서 나타난 공통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거쳐 사회정보처리과정을 통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은 정서 조절에는 부적인 직접 효과를 보였다. 셋째,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공격성과 사회정보처리과정에 직접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넷째,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정서 조절과 공격성에 유의한 직접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고, 아동의 정서 조절이 사회정보처리과정에 직접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다음으로 공격성 유형에 따른 이론적 모형의 경로에 나타난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현적 공격성의 경우 정서 조절이 공격성에 부적인 직접 효과를 보였지만 관계적 공격성의 경우 이 경로가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외현적 공격성의 경우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이 정

서 조절을 통해 공격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관계적 공격성의 경우 이 경로가 유의하지 않았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개인 내적 요인인 아동의 사회정보처리과정과 정서조절이, 개인 외적 요인인 일상적 스트레스와 어머니 양육행동이 아동의 공격성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경로가 공격성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된 선행연구를 토대로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사회정보처리과정, 정서 조절의 변인들이 아동의 공격성을 설명하는 이론적 모형을 설정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동의 공격성을 설명하는 경로는 공격성의 유형에 따라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었다. 즉 외현적 공격성의 경우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이 정서 조절을 통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고,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이 일상적 스트레스를 거쳐 사회정보처리과정을 통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관계적 공격성의 경우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이 정

서 조절을 통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고,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이 일상적 스트레스를 거쳐 사회정보처리과정을 통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만 유의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주요 결과들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거쳐 사회정보처리과정을 통해 아동의 공격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로 구조는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에서 동일한 형태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면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고, 아동이 일상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사회정보처리과정에 왜곡이 생기고 이러한 왜곡으로 인해 모호한 사회적 상황에 대한 단서를 의도적인 것으로 해석하여 공격적인 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정보처리이론을 적용한 연구들 중에 가장 많은 진전을 보인 분야가 공격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이다. 특히 사회정보처리과정 중 해석 단계에서 공격적인 아동들이 모호하고, 도구적인 자극 상황에 반응해서 적대적인 귀인 편견을 나타내며 이러한 적대적 귀인은 아동이 자극을 주는 또래에서 공격적인 반응을 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에 대해(Crick & Dodge, 1996; Rubin, Bream, & Rose-Krasnor, 1991)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이론적 관점을 경험적으로 지지한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해석 단계뿐만 아니라 사회정보처리과정의 다른 단계도 측정하여 공격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목표 형성 단계를 제외한 모든 단계가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정보처리과정이 관계적 공격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 Crick과 동료들은(Crick, 1995; Crick &

Werner, 1998) 사회정보처리과정과 공격성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여아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공격성 형태를 고려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사회정보처리과정을 측정하는데 관계적 자극을 포함하는 에피소드를 제시하여 사회정보처리과정과 외현적 공격성,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외현적으로 공격적인 아동들은 주로 도구적 갈등에서 적대적인 귀인을 하였으며 여아들은 주로 관계적인 자극에서 어려움을 보고했다(Crick, 1995). 유사한 상황을 제시한 Crick과 Werner(1998)의 연구에서 남아들은 자극의 형태와 관계없이 여아들보다 높은 공격성을 보였지만 여아들은 관계적 자극에서만 관계적 공격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와 같이 공격성의 유형을 나누어 살펴본 연구들은 사회정보처리과정을 측정하는데 관계적 자극을 포함하여 외현적 공격성이 높은 아동과 관계적 공격성이 높은 아동을 비교해 보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관계적인 자극을 포함한 사회정보처리과정 도구를 사용하여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심을 갖고 이론적인 경로를 경험적으로 탐색하였다.

그러나 경로 구조에서 각 유형의 공격성을 설명하는 설명력이 외현적 공격성의 경우 17%를 설명하였지만 관계적 공격성의 경우 8%밖에 설명하지 못했다. 본 연구 결과는 공격성 유형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서로 다른 경로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었지만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설명력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는 본 연구에 포함된 이론 변인들 외에 다른 변인이 공격성, 특히 관계적 공격성을 더 잘 설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은 정서 조절을 통해 아동의 외현적 공격성에 간접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로 구조는 외현적 공격성 모델에서만 유의하였고 관계적 공격성 모델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어머니가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아동은 자신의 정서를 잘 조절하지 못하고 외현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더 많이 보임을 의미한다.

위의 결과는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 정서 조절과 공격성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Chang, Schwartz, Dodge, & McBride-Chang, 2003; Eisenberg & Fabes, 1994; Fabes & Eisenberg, 1992). 정서 조절 능력은 가정 내에서 형성이 되고 이것이 또래 영역으로 전이가 된다(Carson & Parke, 1996). 즉, 부모는 부모 자녀 관계, 직접적인 지도 혹은 모델링을 통해 자녀가 정서 조절 능력을 획득하도록 돕는다.

어머니 양육행동과 정서 조절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어머니가 합리적인 지도와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할수록 문제 중심적 대처 및 지지추구의 정서 조절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였고(임희수, 2000),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부정적인 정서와 정서 조절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Eisenberg, Fabes, Shepard, Guthrie, Murphy, & Reiser, 1999).

그러나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이 정서 조절을 통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외현적 공격성에서만 유의하였고 관계적 공격성 경로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Cole과 동료들(1994)의 연구에서 심한 행동 문제 집단의 남아가 비교집단의 남아보다 부적인 정서를 더 많이 표현하며 이들은 타인의 상황을 인식하고 배려하여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하였다고 보고한 것처럼 이는 정서 조절적인 측면이 외현적 공격성과 더 연관이 있고 관계적인 공격성은 인지적인 측면과 좀 더 연관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공격성의 유형에 따라 어떤 변인이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이 사회정보처리과정을 통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 경로 구조는 외현적 공격성 모델과 관계적 공격성 모델에서 동일한 패턴으로 나타났다. 사회정보처리과정은 많은 연구에서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제시되어 왔다. 따라서 사회정보처리과정과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사회정보처리과정을 거쳐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이 사회정보처리과정을 통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이 사회정보처리과정과 공격성에 이르는 경로가 모두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이 공격성에 직·간접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선행연구들(Crick, 1997; Grotper & Crick, 1996)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로,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볼 수 있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과 관련이 있다고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어머니 양육행동의 하위요인(신체적 체벌, 관리·감독, 비밀관적 훈육 등)을 중심으로 양육행동 도구를 구성하였으나 양육행동이 공격성에 미치는 직접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더구나 추가분석에서도 공격성이 높은 아동의 어머니가 보고한 양육행동 하위요인별 점수와 공격성이 높지 않은 아동의 어머니가 보고한 양육행동 하위요인별 점수 간에 별 차이가 없었다. 이는 어머니들이 양육행동 질문지에 반응을 하는데 사회적 바람직성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함께 본 연구의 대상인 초등학교 고학년 연령 시기는 부모의 직접적인

영향이 줄어드는 시기여서 부모의 양육행동에서 집단간 차이가 없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어머니 양육행동 질문지의 하위 요인 중 비밀관적 훈육, 신체적 체벌, 관리·감독의 신뢰도가 .71~.77수준으로 별로 높지 않게 나타났다. 이러한 측면이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를 낮추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 대상으로 어머니와 아동 설문지가 모두 있는 경우에만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는데 어머니 설문지가 수거되지 않은 아동의 경우에 공격성 점수가 높은 아동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대상의 선택적 탈락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넷째,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이 일상적 스트레스를 통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 경로 구조는 외현적 공격성 모델과 관계적 공격성 모델에서 동일한 패턴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들에서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제시되어 왔다(송정아·이양희, 2004; 정경택, 2003; 한미현·유안진, 1996).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통해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 일상적 스트레스 그리고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어머니가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아동은 일상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아동은 공격적인 행동을 많이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정경택, 2003; 한태희·홍상환, 2004).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상적 스트레스는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스트레스 척도의 하위 영역과 공격

성간의 상관분석은 선행연구결과와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친구관련 스트레스( $r=-.10, p<.05$ )와 학업관련 스트레스( $r=-.10, p<.05$ )가 외현적인 공격성에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인 회귀분석결과도 친구관련 스트레스( $\beta=-.11, p<.05$ )가 외현적 공격성 변량의 1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친구관련 스트레스와 학업 관련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아동이 공격적인 행동을 적게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친구관련 스트레스와 학업관련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아동은 공격적인 행동을 하기 보다는 위축, 회피 등의 내면화 문제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김길임·심희옥, 2002; Altshuler & Ruble, 1989; Causey & Dubow, 1992).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아동의 대처행동을 살펴본 연구에서(Altshuler & Ruble, 1989; Causey & Dubow, 1992) 아동의 대처행동이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통제감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원하는 물건을 기다리다가 받지 못하는 좌절 상황 또는 친구와 다툰 갈등 상황 등 통제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대처행동이 주로 회피적 대처행동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일상적 스트레스와 또래 괴롭힘의 가해와 피해경험에 대한 연구에서도(김길임·심희옥, 2002) 가해도 높고 피해도 높은 집단이 여러 가지 영역에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지각하고 있음을 보고했다. 이는 아동이 여러 영역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또래 괴롭힘의 가해자이면서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즉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아동은 어떤 때는 공격적이다가도 상황이 바뀌면 소극적이고 의기소침해져 자기방어 능력이 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아동이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기보다는 회피적이고 방어적인 행동을 보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상적 스트레스가 공격성에 미치는 직접 경로가 유의하게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다섯째, 정서 조절이 사회정보처리과정을 통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 경로 구조는 외현적 공격성 모델과 관계적 공격성 모델에서 동일한 패턴으로 나타났다. 사회정보처리이론에 따르면 정서가 중요한 방식으로 사회정보처리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고 있다. 즉 정서는 부호화되고 해석되어지는 내적인 단서로서의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상황을 해석하고 특수한 행동반응을 이끌어 내는 가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 상태일 때 모호한 사회적 자극을 적대적 단서로 잘못 해석하여 공격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도 정서 조절이 사회정보처리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했지만 그 경로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정서 조절을 어머니가 평정하는 방식으로 측정하였는데 이러한 측정 방식이 아동의 내적인 상태를 살펴보는 사회정보처리과정과의 관계를 낮춘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정서 조절 도구가 사회정보처리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의 정서적 측면을 민감하게 측정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근거로 사회정보처리과정을 측정하는 본 연구의 도구 안에는 아동의 정서 상태에 대한 질문(예, 이러한 일이 나에게 발생한다면 얼마나 화가 날까요?)이 한 문항 포함되어 있는데 이 질문과 다른 사회정보처리과정의 각 단계와는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정서 상태에 대한 질문은 해석 단계( $r=.87$ ,

$p<.01$ ), 외현적 공격적 반응 결정( $r=.17$ ,  $p<.01$ ), 관계적 공격적 반응 결정( $r=.14$ ,  $p<.01$ ), 친사회적 반응 결정( $r=-.22$ ,  $p<.01$ )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또 다른 이유로는 정서 조절의 신뢰도가 자기 조절의 경우 .71로 별로 높지 않은 수준으로 도구의 이러한 측면이 다른 변인과의 관련성을 낮추었을 가능성이 있다.

여섯째, 일상적 스트레스가 정서 조절을 통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 경로 구조는 외현적 공격성 모델과 관계적 공격성 모델에서 동일한 패턴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에서는(정경택, 2003; 한태희·홍상향, 2004) 일상적 스트레스와 정서 조절이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일상적 스트레스가 정서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어머니가 평정한 아동의 정서 조절이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내적 상태를 민감하게 측정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 일상적 스트레스와 정서 조절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주로 정서 조절 중 충동성, 공격성 측면과 일상적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연구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정서 조절에서 자기 조절과 타인 조절 측면을 측정해서 그 관계성이 약하게 나왔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상관에 기초한 연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검증된 결과는 설정된 모형과 변인 내에서 해석되어야 하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의 방향이나 인과관계를 정확히 검증하기 위해서는 종단적인 설계 또는 실험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양육행동과 정서 조절을 어머니용 질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했다.

특히 본 연구는 아동의 학교를 통해 어머니용 질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기 때문에 어머니 보고에서 사회적 바람직성이 개입되었을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 양육행동의 경우 아동 보고를 통해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 양육행동을 측정하거나 관찰과 면접 등의 다른 조사 방법을 사용하여 본 이론적 모형을 반복하여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모형 분석은 공격성이 상위 30%에 해당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므로 임상집단은 아니나 비교적 공격성이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일반 아동 등에 적용할 때 유의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본 연구의 특성상 어머니와 아동의 자료가 모두 수거된 경우에만 분석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편부가족 혹은 조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아동 등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므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할 때 유의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김길임 · 심희옥(2002). 일상적 스트레스와 또래 괴롭힘의 가해와 피해경험 : 학년과 성별 비교. **아동학회지**, 23, 139-151.

김지현(2005).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 외적 요인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민하영 · 유안진(1998).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 척도 개발. **아동학회지**, 19, 77-96.

송정아 · 이양희(2004).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반사회적 행동과의 관계연구. **생활과학**, 7, 189-190.

이병래(1997). 부모의 심리적 자세와 유아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임희수(2000).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조절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경택(2003). 사회적 지지와 지각된 스트레스가 청소년

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 12, 151-162.

통계청(2005). [http : //www.nso.go.kr](http://www.nso.go.kr)

한미현 · 유안진(1996). 아동의 스트레스 지각 및 사회적지지 지각의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17, 173-188.

한유진(2004). 아동의 정서조절 동기 및 정서조절 능력과 행동문제. **대한가정학회지**, 42, 66-78.

한태희 · 홍상황(2004).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내재화문제의 관계에서 인지변인과 부정적 대처방략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 학교**, 1, 1-21.

Altshuler, J. L., & Ruble, D. N.(1989). Developmental changes in children's awareness of strategies for coping with uncontrollable stress. *Child Development*, 60, 1337-1349.

Band, E. B., & Weisz, J. R.(1988). How to feel better, when it feels bad : Children's perspectives on coping with everyday stress. *Developmental Psychology*, 24, 247-253.

Berkowitz, L.(1993). *Aggression : Its causes, consequences, and control*. New York : Academic Press.

Block, J. H.(1983). Differential premises arising from differential socialization of the sexes : Some conjectures. *Child Development*, 54, 1335-1354.

Campos, J. J., Campos, R. G., & Barrett, K. C.(1989). Emergent themes in the study of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 regul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5, 394-402.

Carson, L., & Parke, R. D.(1996). Reciprocal negative affect in parent-child interactions and children's peer competency. *Child Development*, 67, 2217-2226.

Causey, D. L., & Dubow, E. F.(1992). Development of a self-report coping measure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 47-59.

Chang, L., Schwartz, D., Dodge, K., & McBride-Chang, C.(2003). Harsh parenting in relation to child emotion regulation and aggression. *Journal*

- of Family Psychology*, 17, 598-606.
- Coie, J. D., & Dodge, K. A.(1998). Aggression and antisocial behavior. In N. Eisenberg(Eds.), W. Damon(Series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5<sup>th</sup> Ed.). New York : Wiley.
- Coie, J. D., Dodge, K. A., & Kupersmidt(1990). Peer group behavior and social status. In S. R. Asher & J. D. Coie(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pp. 17-59).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le, P. M., Michel, M., & Teti, L. O'Donnell.(1994).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 A clinical perspective. In N. A. Fox(Eds.).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 Biological and behavioral considerations*(pp.53-72).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vol.59, nos. 2-3, serial no.240).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ole, P. M., Zahn-Waxler, C., & Smith, K. D.(1994). Expressive control during a disappointment : Variations related to preschoolers' behavior problems. *Developmental Psychology*, 30, 835-846.
- Crick, N. R.(1995). Relational aggression : The role of intent attributions, feelings of distress, and provocation typ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7, 313-322.
- Crick, N. R.(1996). The role of overt aggression, relational aggression, and prosocial behavior in children's future soci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 2317-2327.
- Crick, N. R.(1997). Engagement in gender normative versus nonnormative forms of aggression : Links to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3, 610-617.
- Crick, N. R., & Dodge, K. A.(1994). A review and reformulation of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mechanisms in children's social adjustment. *Psychological Bulletin*, 115, 74-101.
- Crick, N. R., & Dodge, K. A.(1996).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mechanisms i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67, 993-1002.
- Crick, N. R., & Grotpeter, J. K.(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54, 1386-1399.
- Crick, N. R., Grotpeter, J. K., & Bigbee, M. A.(2002). Relationally and physically aggressive children's intent attributions and feelings of distress for relational and instrumental peer provocations. *Child Development*, 73, 1134-1142.
- Crick, N. R., & Werner, N. E.(1998). Response decision processes in relational and overt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69, 1630-1639.
- Crick, N. R., Werner, N. E., Casas, J. F., O'Brien, K. M., Nelson, D. A., Grotpeter, J. K., & Markon, K.(1999). Childhood aggression and gender : A new look at an old problem. In D. Bernstein(Eds.), *Gender and motivation.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Vol. 45.(pp.75-141). Lincoln, NE : University Press.
- DeLongis, A., Folkman, S., & Lazarus, R.(1988). The impact of daily stress on health and mood : Psychological and social resources as mediato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486-495.
- Dodge, K. A.(1991).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D. J. Pepler & K. H. Rubin(Eds.),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pp.201-218). Hillsdale, NJ : Erlbaum.
- Dodge, K. A., Bates, J. E., & Pettit, G. S.(1990). Mechanism in the cycle of violence. *Science*, 250, 162-170.
- Dodge, K. A., & Crick, N. R.(1990).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bases of aggressive behavior in childre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53, 1146-1158.
- Eisenberg, N., & Fabes, R. A.(1994). Mother'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 Relations to

-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comforting behavior. *Child Development*, 67, 2227-2247.
- Eisenberg, N., Fabes, R. A., Guthrie, I. K., & Reiser, M. (2000). Dispositional emotionality and regulation : Their role in predicting quality of social function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136-157.
- Eisenberg, N., Fabes, R. A., Shepard, S. A., Guthrie, I. K., Murphy, B. C., & Reiser, M.(1999). Parental reaction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 : Longitudinal relations to quality of children's soci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70, 513-534.
- Fabes, R. A., & Eisenberg, N.(1992). Young children's coping with interpersonal anger. *Child Development*, 63, 116-128.
- Farrington, D. P.(1989). Early predictors of adolescent aggression and adult violence. *Violence & Victims*, 4, 79-100.
- Fassinger, R. E.(1987). Us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4, 425-436.
- Fitzgerald, P., & Asher, S. R.(1987). Aggressive-rejected children's attributional biases about liked and disliked peer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New York.
- Grotzpetter, J. K., & Crick, N. R.(1996). Relational aggression, overt aggression, and friendship. *Child Development*, 67, 2328-2338.
- Hardy, D. F., Power, T. G., & Jaedicke, S.(1993). Examining the relation of parenting to children's coping with everyday stress. *Child Development*, 64, 1829-1841.
- Kanner, A., D., Coyne, J. C., Schaefer, C., & Lazarus, R. S.(1981). Comparisons of two models of stress measurement : Daily hassles and uplifts versus major life event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4, 1-39.
- Kupersmidt, J. B., Coie, J. D., & Dodge, K. A.(1990). The role of peer relationships in the development of disorder. In S. R. Asher & J. D. Coie(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pp.274-305).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rker, J. G., & Asher, S. R.(1987). Peer acceptance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 357-389.
- Rubin, K. H., Bream, L. A., & Rose-Krasnor, L. (1991). In D. J. Pepler & K. H. Rubin(Eds.),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 (pp.201-218). Hillsdale, NJ : Erlbaum.
- Thompson, R. A.(1994). Emotion regulation : A theme in search of definition. In Fox, N.(Eds.),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 Biological and behavioral considerations*(pp.25-52).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
- Travillion, K., & Snyder, J.(1993). The role of maternal discipline and involvement in peer rejection and neglect.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4, 37-57.

2006년 2월 28일 투고 : 2006년 5월 13일 채택